

#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한미관계 전망: 미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중호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road2nk@gwu.edu

## I. 서론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20~22일 사흘간 한국을 방문하여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가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미국의 국내정치 환경과 동아시아 정책 초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의 세계전략 입장과 동아시아 정책의 초점을 이해해야 한다.<sup>1)</sup> 그래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글로벌 역할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미국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은 미국의 생각과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 방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political goal)은 어려운 국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의 정책적 목적(policy goal)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 하겠다.<sup>2)</sup> 한국 방문을 통해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면, 일본 방문을 통해서도 후자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1)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방향과 초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Foreign Affairs*,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Joe Biden, March/April 2020; 김중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과 아시아정책 방향,"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2.

2)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BBB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 추진해온 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개발 구상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제안이었다. *VOA News*, "US to Offer Alternativ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atsy Widakuswara, June 12, 2021.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미투자 약속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부품 등 주요 전략 품목의 수입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쿼드(Quad)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들(일본, 호주, 인도)과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새로운 경제협의 채널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국내 정치에 보여줄 만한 성과들을 확실히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성과라고 홍보하는 것들이 실제로 정치경제적 효과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영역에 던지는 시그널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는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으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sup>3)</sup> 한편, 미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또는 싱크탱크 전문가 등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과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관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sup>4)</sup>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바이든 정부는 향후 맞닥뜨릴 쟁쟁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I.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미

### 1.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양국이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공개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순서가 동일하므로 그 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공동성명은 몇 가지 주제 영역별 이슈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나 행동계획이 담겨있다. 이슈에 대한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예로서,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하여

3)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전에는 미국의 뉴스 기사나 사설, 기고문 등에서 윤 후보의 27년 검사 경력 또는 정치경험 결핍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묘사되었고, 심지어는 대북 강경 입장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처럼 전망되기도 하였다. 부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바람. *Foreign Policy*, “Conservatives Are Slumping in South Korea’s Tumultuous Presidential Race,” S. Nathan Park, January 6, 2022; *The Hill*, “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 Seung-hwan Choi, February 9, 2022.

4) 다음을 참조 바람. *Washington Post*, “Biden Visit Tests New South Korean President, a Foreign Policy Novice,” Michelle Ye Hee Lee, May 22, 2022; *VOA News*, “Biden, Yoon Embrace Policy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Backed by Deterrence, Not Concessions,” Christy Lee, May 25, 20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할 것이며, 경제에너지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표 1〉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주요 주제	세부 내용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li> </ul> </li> <li>ii)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li> <li>iii)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li> </ul>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li> </ul> </li> <li>ii)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설치에 합의</li> </ul> </li> <li>iii) 원자력 협력 및 우주 협력</li> </ul>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기후변화 대처, 전염병 퇴치, 개방적 인터넷 구축 협력</li> <li>ii)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반대</li> <li>iii)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li> </ul>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것들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역할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는 미국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코로나19 퇴치 노력과 관련,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 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도 포함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이슈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양국은 미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을 명시하였다.

공동성명에는 대만 이슈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들어 있다. 두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는 짧은 문장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2021년 공동성명에서 대만 이슈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반대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에 대한 방해를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같은 문단 내에 서술되었다. 그러나 2022년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 또는 환영/지지 표명의 내용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있지만 양국 대화 속에서 표출된 관심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양국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는 아직 양국 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이슈이지만 양국 또는 일방이 관심을 표명한 경우라 하겠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특정 소수 국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국도 참여하여 양자 및 다자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쿼드 회원국들의 입장과 협의체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환영한다는 표현만 포함한 듯하다.

## 2. 정상회담의 의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양국의 군사동맹이 70주년을 1년 앞둔 시점에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양국관계의 성장과 성숙 또는 심화와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하겠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강조된 세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면 ‘강력한 확장억제’,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resilience)’ 등이라 하겠다.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인류가 역사의 변곡점(inflexion point)을 지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미국 주류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동일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직시하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에 뜻을 모은 정상회담이라는

평을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이후 두 번의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였는데, 1년의 시간을 두고 각각 다른 두 명의 한국 대통령들을 상대해야 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영접하였고, 올해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한일 방문 일정이 올해 초 확정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었으나 만남은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전화 통화만 이루어졌다. 세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을 만나러 오면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다시 만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아해 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수행한 미국 측 주요 고위급 인사는 지나 레이몬드(Gina Raimondo) 상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안보보좌관뿐이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은 다른 일정때문에 수행하지 않았다. 이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획할 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반드시 배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3의 의제들이 회담의 주축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에 와서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과 한국 재벌들의 비즈니스 미팅이라거나 외교안보 분야의 의제들을 소홀히 다룬 회담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sup>5)</sup>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방문 이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였고 필요한 행동 계획(action plan)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굳이 2021년 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재확인되었으나 그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2022년 공동성명에서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로서는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지만, 한국 신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안보공약 표현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정부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

5) 『한겨레』, 「들러리 선 한국 대통령, 자기드취 말고 얻은 게 무엇인가」, 2022. 5. 26.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안보공약을 받아들이는 한국정부가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국관계의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안보공약의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실질적 외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는 미국의 핵능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나 실제로 그런 표현이 북한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남북대화과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부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심혈을 기울여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이러한 문구를 환영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외교가 국익을 위한 거래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의 관심사를 삽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즉, 2021년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포커스로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 권리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임기 내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2022년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견제 또는 중국 억지를 위한 국제연대에 한발 더 깊숙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과 함께 ‘원팀(one team)’을 이루어 국제질서를 재건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는 수사적 표현과는 별개로, 한국은 미중 양대국의 전략경쟁 상황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sup>6)</sup>

위와 같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살펴봤으나,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미국 정부와 한국 대기업들의 실질적 기술 협력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땅에 착륙하자마자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한 것은 삼성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미국이 현재 가장 원하는 수입품목 1호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sup>7)</sup> 미국 현지에서는 2021년 초부터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사태로 인해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신차 생산이 차질을

6) 김중호, 「미중갈등과 한국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12월호, pp.37~40.

7)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내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규모는 170억달러(약 21조원)였다. 삼성은 1997년부터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가까운 지역인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신규 공장 부지로 확정하였다.

빛자 전국의 모든 자동차 매장이 텅빈 상태로 1년 이상을 버텨야 했다.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신경써 온 전략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직접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를 ‘말 발굽에 박는 편자의 못’에 비유하면서 반도체 생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바이든 대통령 일행은 한국에 와서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한국기업들의 대미투자를 유치하는 시간을 가졌다.<sup>8)</sup> 방한 일정의 마지막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의 면담이었다.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총 105억달러(약 13조원)의 투자 계획을 선물로 안겨주었다.<sup>9)</sup>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미국에 8,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래 좋은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그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함께 공급망 회복을 위해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0)</sup>

### III. 미국 내 정치경제 여건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 1. 미국 정치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격상된 한미관계의 생명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말 중간선거, 그리고 2년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바이든의 리더십은 국내외 안팎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정책을 다뤘던 베테랑 인사들이 바이든이 이끄는 ‘아메리카호’에 동승했으므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10여년전과 지금의 국내외

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대규모 미국투자를 결정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바이오 사업에 모두 6조 5,000억원을 투입기로 한 것인데, 이 중 상당수가 미국 현지 생산라인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미국 시리큐스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북미투자 규모만 17조원이 넘는다. 이를 통해 합작법인 공장 7개, 단독 공장 4개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미국 전체 셀바 가운데 이들 3사의 비중은 현재 10.3%에서 2025년 7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9) 정 회장은 면담 전날 55억달러를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에는 2025년까지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관련된 미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2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땀방’을 연발했었다.

전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순항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1973~2009년) 상원의원으로 그리고 8년간(2009~17년) 부통령으로 공직을 수행했으며, 특히 외교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정치 지도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행적 언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 민주당 정부의 정권 재탈환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인 2021년 초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행정부 출범 직후 55% 수준이었으나 7개월 후에는 40%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36%까지 추락하고 말았다.<sup>11)</sup> 선거기간에 공약했던 것과는 달리 침체되고 있는 미국경제를 부양할 수단과 조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2)</sup> 미국 경기침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팬데믹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왕복 2만Km가 넘는 여정을 4박 5일만에 소화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듣게 된 소식은 한국 시간 25일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것과 미국 중부 시간 24일 오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마치 ‘신데렐라’ 동화의 한 장면과도 유사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5일간의 화려한 외교무대에 잠시 섰다가 다시 골치 아픈 정치 현실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기 전부터 바이든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을 공격하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 2. 미국경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국의 지도부는 경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했다. 2021년에 이어 현재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상승하여 8%대를 훌쩍 뛰어넘었고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바이든 정부가 다방면으로 경기부양책을 고심해 왔으나, 국내정치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11) Reuters, "Biden's Public Approval Falls to 36%, Lowest of His Presidency," MAY 24, 2022.

12)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한 미국재건계획(Build Back Better, BBB)의 일부인 인프라건설의 예산안(1조 7천억달러)이 10개월간의 회에서 표류하다 1조 2천억달러로 삭감된 후 2021년 11월에 겨우 상하원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역점을 두었던 사회복지예산(3조 5천억달러)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 지연에 부담을 느낀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2023년도 예산안(5조 8천억달러)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BBB관련 예산은 누락시켰다. 미국의 예산 이슈는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리더십과 결부된 정치 이슈이다.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악화가 정치 악화와 연동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했던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 방문 직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외국이 아닌 미국에 직접 짓게 해야 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3)</sup> 이미 지난 3월에 그녀는 의회가 대통령의 혁신법안(innovation act)을 신속히 통과시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많은 반도체 관련 물건이 제조되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녀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발생한 자동차 가격의 인상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재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미국정부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수입규제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 마련은 미국 내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미국 국민들은 행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최근 사회분열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 IV. 결론: 한미관계의 전망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이해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계획된 일정이었므로 일본 방문 후에 한국 방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13) 반면, 지난달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핵심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프렌드쇼어링’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다음을 참조 바람. 『조선비즈』, 「이재용 만나고 다보스 간 美 상무장관 “반도체, 미국서 만들어야”」, 2022. 5. 26.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방문을 계획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하다면 한 국가라도 더 설득하여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게끔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주요 행사를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했던 이유로 해석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경제협력 네트워크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시한다는 입장을 갖는 게 아니라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받아 일본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5월 23일 미일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제목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강화 (Strengthening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 세계질서 강화를 협의하고 재구축하기 위해 일본까지 날아 갔다. 일본에 글로벌 질서 수호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을 위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 한눈을 판 사이 일본은 미국의 마음을 얻어 다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수순을 밟아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참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 당국자는 한국의 추가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시기부터 쿼드와의 협력 의지를 피력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이 논의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쿼드 참여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정부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쿼드 참여가 과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조치와 같은 것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참여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쿼드 회원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복원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알가알부 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되는 추세 속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선택을 견인하는 방안으로서 경제적 지원에 관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은 과거 북한에 적용했던 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외교 이벤트로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처음 쏟아낸 외교 레토릭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 능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기회였다. 즉, 미중 전략경쟁의 한 가운데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한 전략 아이디어와 추진 역량이 있느냐 하는 질문과 맞닥뜨린 시간이라 하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한미관계의 발전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경제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중국 견제를 위해 얼마나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특별 미션을 부여받은 일본과 얼마나 협조하는지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아무쪼록 한미관계의 진화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